

濟州島의 性別・年齡別 人口構成

目 次	I. 序 論
	II. 年齡別 人口構成의 特徵
	III. 年齡 三區分에 의한 人口構成
	IV. 可妊年齡層의 女性人口
	V. 性 比
	VI. 結 論

I. 序 論

여러가지로 屬性을 달리하는 人口의 質的 內容을 특정한 基準에 따라 靜態的으로 分類한 結果를 人口構成(population composition) 또는 人口構造(population structure) 라고 한다

人口構成은 다음 세가지 점에서 人口研究 뿐만 아니라 社會構造를 把握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첫째, 人口構成은 한 社會의 構造의 特徵을 反映하고 있다는 점이다. 人口를 分類하는 質的 基準은 바로 社會構造를 밝히는 指標이며 이 基準에 따라 人口를 分析함으로써 그 社會의 基本構造를 把握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人口構成은 出生・死亡・移動 등 過去의 人口過程과 社會變動의 結果로서 決定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人口構成은 한 社會의 歷史를 反映하는 것이며 이 때문에 人口構成을 歷史的 產物이라 하는 것이다.

셋째, 人口構成은 過去의 歷史와 오늘의 社會相을 反映할 뿐만 아니라 將來의 人口過程에 중요한 影響을 미친다는 점이다. 現在의 年齡別 人口構成과 配偶關係는 將來의 人口構成과 出生 및 死亡動態를 決定하는 중요한 變數가 된다. 또한 教育程度와 經濟狀態別 人口構造도 앞으로의 社會變動에 많은 影響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人口構成의 分析은 社會變化趨勢의 豫測이나 各種 計劃樹立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人口構成이 갖는 이러한 세가지 意味는 濟州島의 人口를 分析하는데 있어서도 여전히 중요한 측면이 된다.

특수한 自然條件과 독특한 生活樣式을 가진 濟州島는 陸地와는 여러가지 면에서 다소 相異한 生活慣習과 社會制度를 유지해 왔고 이러한 濟州島의 特殊性이 人口構成에도 크게 影響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濟州島가 경험한 최근의 歷史的 事實들도 오늘의 濟州

* 濟州大學校 社會學科 專任講師

島 人口構成에 反映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筆者는 이 論文에서 濟州島 人口構成의 分析을 통하여 濟州島 社會의 構造的 特性的 面을 밝히고 濟州島가 경험한 과거의 歷史的 事實들이 人口構成에 어떠한 影響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서 현재의 人口構成이 앞으로의 人口過程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게 될런지도 아울러 展望해 보고자 한다.

人口構成을 分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分類基準로서는 年齡, 性, 人種, 社會階級, 言語, 婚姻狀態, 教育程度, 經濟狀態 등 그 種類가 매우 다양하지만 이 論文에서는 性別, 年齡別 人口構成을 중심으로 論議하고자 한다.

이 論文에서 사용된 資料는 주로 人口센서스資料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濟州島의 人口構成을 보다 선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韓國 全體의 統計値와 比較 檢討하기로 한다.¹⁾

II. 年齡別 人口構成의 特徵

年齡別 人口構成은 하나의 可變構造로서 出生力, 死亡力, 人口移動, 人口規模와 構成의 變化 등을 研究하는데 基本資料가 된다.

다음 表 1은 濟州島의 年齡別 人口構成을 각 센서스 年度別로 全國値와 비교해 놓은 것이다.

表 1에 나타난 濟州島의 年齡別 人口構成을 全國値와 比較하면서 時系列的으로 자세히 관찰할 것 같으면 濟州島의 年齡別 人口構成에 나타나는 몇가지 特 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

첫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少年人口層 특히 0~4歲層의 構成比率이 1960년부터 1970년까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全國의 0~4歲層 構成比率을 살펴보면 1955년에 15.70퍼센트의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던 것이 1960년에는 더욱 增加하여 17.48 퍼센트로 最高水準을 기록하고 있다. 그 이후에는 0~4歲層의 構成比率이 계속 낮아져서 1980년에는 10퍼센트 線까지 低下하고 있다.

여기에 비해 濟州島의 0~4歲層 人口構成比率은 1955년에 13.72퍼센트의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나 1950年代 후반에 갑자기 증가하여 1960년부터 1970년까지 16퍼센트 전후의 높은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濟州島의 0~4歲層 人口의 構成比率은 1970年代 특히 1975年 이후에 현저히 감소하여 1980년에는 全國値와 비슷한 10퍼센트 정도의 낮은 水準으로 低下하고 있다.

이러한 0~4歲層 人口의 構成比率의 變化는 바로 出生率의 變化趨勢를 反映하는 것이다

1) 濟州島의 人口成長趨勢에 대해서는 筆者의 論文(濟州島의 人口成長, 「耽羅文化」創刊號, 1982)을 參照하기 바람.

Table 1. Population Composition by Age
年齡別 人口構成

Age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Whole Country	Jeju*	Whole Country	Jeju	Whole Country	Jeju	Whole Country	Jeju	Whole Country	Jeju	Whole Country	Jeju
0— 4	15.70	13.72	17.48	15.79	15.37	16.67	13.73	16.12	12.19	14.25	10.13	10.23
5— 9	13.33	12.94	13.94	12.30	15.82	14.50	14.42	14.79	12.84	14.61	11.88	13.63
10—14	12.19	13.29	11.37	11.38	12.31	11.18	13.98	12.63	13.05	13.40	11.97	14.13
15—19	11.14	11.58	9.49	9.63	9.29	8.81	9.82	8.34	11.96	10.15	11.18	10.57
20—24	8.16	7.28	8.75	8.74	7.88	7.79	8.03	7.27	9.01	7.11	10.63	9.14
25—29	6.69	5.90	7.36	7.62	7.70	7.76	7.01	6.92	7.23	6.60	8.17	6.89
30—34	6.46	5.58	5.98	5.35	6.72	6.75	6.98	6.77	6.41	6.24	6.72	5.87
35—39	5.43	4.28	5.65	4.93	5.33	4.88	5.90	5.89	6.31	6.09	5.93	6.20
40—44	4.90	4.45	4.56	3.85	4.62	4.08	4.65	4.10	5.19	5.17	5.77	5.85
45—49	4.41	4.31	4.06	3.89	3.83	3.29	4.09	3.64	4.03	3.51	4.81	5.09
50—54	3.16	3.70	3.33	3.68	3.25	3.06	3.26	2.76	3.45	3.04	3.58	2.97
55—59	2.86	3.90	2.55	3.28	2.70	2.94	2.72	2.72	2.71	2.34	3.05	2.63
60—64	2.23	2.86	2.16	3.23	1.89	2.44	2.12	2.46	2.13	2.20	2.22	1.91
65—69	1.67	2.49	1.52	2.21	1.50	2.34	1.38	1.92	1.57	1.86	3.97	4.90
70+	1.65	3.74	1.80	4.10	1.80	3.51	1.92	3.68	1.91	3.44		
Total	99.98	100.02	100.00	99.98	100.01	100.00	100.01	100.01	99.99	100.01	100.01	100.01

Source: Census Reports. Excludes Foreigners except in 1960.

* Derived from Tai Hwan Kwon's estimates based on the redistribution of the military population to their previous usual place of residence. (Tai Hwan Kwon, *Demography of Korea*, S.N.U. Press, 1977, p. 219, 287).

** One year less than the age presented in the 1960 Census report which followed the Korean account of age. (Tai Hwan Kwon, *Demography of Korea*, p. 288)

*** Advance Report of the 1980 Census (2% sample tabulation)

즉 1960년부터 1970년까지 濟州島의 0~4歲層 構成比率이 16 퍼센트 전후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 시기에 濟州島의 出生率이 계속 高率을 維持하였기 때문인 것이다.²⁾

0~4歲 人口層의 構成比率은 이들의 年齡階級이 변함에 따라 점차 다음 年齡階級의 構成比率에 까지 영향을 파급시키게 된다. 즉 1960년부터 1970년까지 5~9歲 人口層의 構成比率이 增加하고 있는 것이나 1966년부터 1980년까지 10~14歲의 構成比率이 增加하고 있는 것은 一次的으로는 前期의 0~4歲層의 높은 構成比率 때문인 것이다.

또 1955년의 0~4歲層과 1960년의 0~4歲, 5~9歲層은 濟州島의 構成比率이 全國値보

2) 濟州島의 出生率趨勢에 대해서는 筆者의 앞의論文 參照.

다 각기 1퍼센트 포인트 이상씩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年齡層을 코호트別로³⁾ 觀察해 보면 1980年까지 20餘年 동안 1퍼센트 포인트 이상 낮은 水準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年齡別 人口構成이 過去의 出生力 變化에 直接的으로 影響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濟州島의 年齡別 人口構成에 있어서 두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특징적인 모습은 靑壯年層(最近에 와서는 50~60代層)의 構成比率이 全國値보다 비교적 낮다는 점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1960年에 30~49歲(대체로 1910年~1930年生)에 해당하는 各 年齡階級の 構成比率을 코호트別로 觀察해 보면 1980年의 50~64歲에 해당하는 年齡層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全國値 보다 낮은 構成比率을 지속하고 있다. 이 出生集團에 속하는 年齡層 중에서 1955年의 25~29歲層의 構成比率이 全國値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1955年의 人口센서가 現在人口原則(de facto principle)에 입각하여 조사되어서 당시 모슬포 육군 제1훈련소를 중심으로 하는 다수의 군인(약 35,000명 정도로 추산)⁴⁾이 포함되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4歲層의 構成比率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도 軍人들이 이 年齡層에 集中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시의 軍人들을 常住地로 還元시켜 再集計 한다면 이들 年齡層의 構成比率은 훨씬 낮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점은 1956年 年末常住人口調査의 性比를 이용하여 1955年의 20~39歲 男子人口를 常住人口原則(de jure principle)으로 再集計한 權泰煥의 推計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이 推定値에 의하면 1955年 20~44歲에 해당하는 各 年齡階級の 構成比率에 있어서 濟州島値가 모두 全國値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⁵⁾

그러면 이와같이 대체로 1910年~1930年 出生集團의 構成比率이 濟州島에서 비교적 낮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人口構成을 자세하게 分析하기 위해서는 過去의 年度別 出生率과 死亡率에 관한 正確한 資料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과거 濟州島의 出生과 死亡趨勢를 정확하게 파악할 만한 資料는 거의 없다.

만약 出生과 일반적인 死亡水準에 있어서 濟州島와 全國間에 큰 差異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우리는 그 原因을 日帝下의 人口移出과 4·3事件에서 그 原因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日帝時 濟州島民의 移出地域은 地理的 條件으로 인하여 日本이 主가 되었는데 解放 당시에는 在日濟州 僑胞의 數가 10萬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⁶⁾ 解放 直前(1944. 2~1945.

3) Cohort란 同時出生集團 즉 1966年의 5~14歲層, 1970年의 10~19歲層, 1975年의 15~24歲層, 1980年의 20~29歲層을 말한다.

4) 李昌基, “濟州島의 人口成長,” 耽羅文化, 創刊號, 1982.

5) Tai Hwan Kwon, *Demography of Korea*, S. N. U. Press, 1977. p. 219, 287.

6) 朴用厚, 濟州島誌, 白映社, 1976. p. 176.

4)에 濟州島의 16個里를 調査分析한 石宙明의 資料에 의하면 出稼者의 약 7割 정도가 15~34歲層에 속하고 있고 특히 20~24歲層에 出稼者의 1/4이 集中되어 있다. 이러한 出稼者의 年齡分布에 대해서 石宙明은 『濟州島의 出稼가 青年期에서 極盛하고 中年期에 들어서는 점차로 歸郷하여 老年期에 들기 까지는 거의 전부가 歸郷하는 모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⁷⁾ 이들 중 多數가 解放後 歸還하지 못하고 日本에 殘留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⁸⁾ 또 한편으로는 解放後의 混亂과 4·3事件, 6·25動亂 등 政治的 社會的 不安을 틈타 계속 渡日함으로써⁹⁾ 濟州島의 年齡別 人口構成에 크게 影響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解放前後 時期에 15~34歲이었던 者들은 대체로 1910年~1930年生에 해당되고 1955年의 25~44歲層과 同一出生集團이 되는 것이다.

또한 4·3事件도 1950年代 이후의 濟州島 年齡別 人口構成에 크게 影響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1948년부터 數年 동안에 걸친 慘禍로 희생된 자는 公式發表에 의한 死亡者만도 27,700여명에 달하고 있다.¹⁰⁾ 이들의 年齡分布는 알 길이 없으나 희생자가 青年層에 보다 많았을 것으로 짐작한다면 4·3事件에 의한 희생이 1955年의 25~44歲 年齡層의 構成比率이 비교적 낮아지게 된 주요한 要因이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1960年의 30~49歲, 1966年의 35~54歲, 1970年의 40~54歲, 1975年의 45~59歲, 1980年의 50~64歲層의 構成比率이 계속 낮은 상태를 유지하게 된 것으로 믿어진다.

濟州島의 年齡別 人口構成에 있어서 세번째의 特徵은 老年層 人口의 構成比率이 比較的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흔히 濟州島는 長壽의 고장이며 老人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¹¹⁾ 石宙明은 「濟州島의 生命調査書」에서 部落에 따라 다소의 差異가 있기는 하지만 80歲 이상의 高齡者가 平均 1.5 퍼센트나 된다고 밝히고 있다.¹²⁾ 1955年 이후의 인구센서스에서 濟州島의 老年層 人口의 構成比率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55年과 1960年

7) 石宙明, 濟州島의 生命調査書-濟州島 人口論-, 서울신문사출판부, 1949. pp.185~186.

石宙明, 濟州島 隨筆, 寶晉齋, 1968. p. 193

8) 申幸澈도 在日濟州僑胞의 歸還과 送還이 相對的으로 적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申幸澈, “在日濟州僑胞: 그 少數集團으로서의 性格과 階層構造,” 耽羅文化, 創刊號, 1982)

9) 夫萬根, 光復濟州30年, 文潮社, 1975. p. 425

申幸澈, 앞의 論文.

10) 이 숫자는 당시 濟州島人口의 約 10 퍼센트에 해당한다.

夫萬根, 앞의 책, 1975. p. 60

濟州道, 濟州道誌(上) 1982. p. 467

11) 濟州島의 長壽에 관한 것은 韓昌榮, 濟州道老人論攷, 韓一文化社, 1978, pp. 63~77 에 잘 정리되어 있다.

12) 石宙明, 濟州島의 生命調査書, 1949. p. 188

인구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대체로 50代 이상의 年齡層에서 濟州島의 構成比率이 全國値를 상회하고 있고, 1966年과 1970年에는 60代 이상에서, 그리고 1975年 이후에는 70代 이상에서 全國値 보다 높은 比率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濟州島에서 老年層 人口가 비교적 高率을 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石宙明은 당시 死亡率이 높은 濟州島에서 高齡者가 비교적 많은 이유를 生物學的인 입장에서 다음 세가지로 지적하고 있다.¹³⁾

1. 격렬한 自然淘汰로 強壯한 사람이 남는다.
2. 食品에 動物質의 “자리”와 植物質의 “떡”이 극히 풍부하다.
3. 精神的 衝動이 없는 原始的 生活을 한다.

한편 1955년부터 1965년까지의 濟州島 人口를 分析한 高甲錫과 崔英姬는 老年人口의 構成比가 높은 原因으로서, 經濟活動人口의 移出이나 出生率의 급격한 減少로 인한 老年人口의 相對的 增大可能性을 濟州島人口의 追跡上 確證이 없다고 否定하고, 出生率과의 相關關係로 보아 死亡率이 陸地에 비해서 다소 낮아 人口의 轉換(population transition)이 빨리 오고 平均餘命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看做하고 있다.¹⁴⁾ 이러한 解釋은 産業化(과학기술의 발달과 영양상태의 개선)→ 死亡率 低下→ 人口爆增(과도한 인구증압)→ 人爲的 出產抑制→ 出生率 低下의 過程을 거치는 西歐의 人口轉換 模型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데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한다. 즉 당시 비교적 낮은 濟州島의 出生率 趨勢를 보고 出生率 低下에 先行해서 이미 死亡率이 減少되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 것은 무리한 解釋이었다고 생각된다. 당시 濟州島의 비교적 낮은 出生率은 人口重壓에 의한 人爲的 出產抑制의 結果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相對的 晩婚傾向과 可妊年齡層 女性의 낮은 有配偶率, 青年層의 낮은 人口構成比 등으로 인한 一時的인 現象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¹⁵⁾

筆者의 分析에 의하면 濟州島의 年齡別 人口構成에 있어서 老年層의 構成比率이 比較的 높게 나타나는 것은 少年層 및 靑壯年齡層의 貧困으로 인한 老年層 人口의 相對的 增大가 一次的인 原因이 된 것으로 보인다. 石宙明이 지적한 바와 같은 要因들이 濟州島의 長壽 傾向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老年層의 構成比率 增大에 長壽가 미친 영향의 정도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筆者의 이러한 假說은 濟州島의 老年層 人口構成比率이 全國値보다 높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年齡層이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점차 高齡層으로 밀려나고 있다는데서 뒷받침되고 있다. 즉 1955年과 1960年에는 50代 이상에서 全國値보다 높은 構成比率을 보이고 있으나

13) 石宙明, 濟州島의 生命調查書, p. 189

石宙明, 濟州島 隨筆, p. 208

14) 高甲錫·崔英姬, “濟州島人口의 特質,” 人口問題論集, 第2號, 1966.

15) 李昌基, “濟州島의 人口成長,” 耽羅文化, 創刊號, 1982.

1966年과 1970년에는 대체로 60代 이상에서, 그리고 1975年 이후에는 70代 이상에서 높은 比率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가까운 장래에 濟州島의 年齡別 人口構成에서 老年層이 높은 比率을 점하는 現象은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Ⅲ. 年齡三區分에 의한 人口構成

이상에서 筆者는 濟州島의 年齡別 人口構成을 時系列的으로 分析해 보았다. 濟州島의 年齡別 人口構成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特徵들은 年齡을 三區分하여 검토할 때 더욱 뚜렷해진다. 이 자리에서는 濟州島의 年齡別 人口構成을 좀 더 분명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年齡을 0~14歲(少年人口), 15~59歲(靑壯年人口), 60歲以上(老年人口)¹⁶⁾으로 三區分하고 여러가지 人口學的 指數들을 算出하여 全國値와 比較 檢討하기로 한다.

人口構成을 觀察하는 方法은 靜態의인 側面에서 把握하는 경우와 動態의인 側面에서 把握하는 경우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靜態의인 面에서 人口構成을 파악한다면 한 年齡階級の 構成比率은 다른 年齡階級과의 相對的인 比重으로서 설명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方法은 觀察이 용이하고 간편하기는 하지만 현재의 人口構成을 야기시킨 要因의 分析이나 變化의 趨勢를 豫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要因의 分析이나 變化趨勢의 豫測을 위해서는 人口構成을 時系列的으로, 動態的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動態的 人口構成의 파악은 한 年齡階級에 속하는 인구의 充員樣態와 다른 年齡階級으로의 轉移樣態까지 分析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의 인구구성을 야기시킨 要因의 分析과 장래의 인구구성에 대한 展望을 可能하게 하는 것이다.

表 2에 의하면 少年人口層(0~14歲)의 構成比率은 年度別로 起伏이 있으나 靑壯年層(15~59歲)은 전반적으로 濟州島가 全國値보다 낮은 반면 老年層(60歲 以上)은 오히려 濟州島가 상당히 높은 比率을 보이고 있다.

少年人口는 出生에 의해서 充員이 되기 때문에 一次的으로는 出生率의 變動에 크게 影響을 받게 된다. 全國의 少年人口 構成比率이 1970년까지 계속 40 퍼센트 이상의 높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1960年代初까지 高出生率이 持續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1975년부터 少年人口의 構成比率은 갑자기 떨어져서 1980년에는 34 퍼센트의 水準으로 減少하고 있다. 이 기간에 少年人口의 構成比率이 갑자기 減少하는 것은 두가지 要因의 複合作用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1960年代 中盤부터 出生率이 계속 低下되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少年人口가 充員된 때문이며, 둘째는 1960年代初 이전 出生率이 높았던 시기에 태어난 世代가 1975년부터 점차 靑壯年層으로 編入되기 시작한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

16) 老年人口의 年齡基準은 65歲以上으로 하는 것이 國際的인 慣例이나 이 論文에서는 分析의 편의를 위해서 60歲以上을 老年人口로 간주한다.

Table 2. Population Composition by 3 Age Groups

年齡三區分에 의한 人口構成

	Age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Whole Country	0—14	41.2	42.8	43.5	42.1	38.1	34.0
	15—59	53.2	51.7	51.3	52.5	56.3	59.9
	60+	5.6	5.5	5.2	5.4	5.6	6.1
Jeju	0—14	39.9	39.5	42.4	43.5	42.3	38.0
	15—59	51.0	51.0	49.3	48.4	50.2	55.2
	60+	9.1	9.5	8.3	8.1	7.5	6.8

Source: Same as the Source in Table 1.

면 少年人口의 構成比率은 出生率이 특별히 상승하지 않는한 앞으로도 좀 더 낮아질 것으로 展望된다.

한편 濟州島의 少年人口比率을 살펴보면 全國의 傾向과는 약간의 時差를 보여주고 있다. 즉 1960년까지 濟州島의 少年人口는 40퍼센트 미만의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1966년부터 1975년까지는 42퍼센트 이상의 높은 構成比를 지속하고 있다. 이것은 濟州島의 出生率이 1955년까지는 비교적 낮지만 1950年代 後盤부터 계속 高出生率을 持續했기 때문이다. 1970년에 43.5퍼센트로 最高의 比率을 보인 것은 1960年代初에 出生率이 가장 높았던데 起因한다. 1980年の 少年人口比率이 갑자기 떨어지게 된 것도 역시 두가지 要因이 複合的으로 作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970年代初부터 낮아지기 시작한 出生率의 影響이 첫째 要因이요, 出生率이 높았던 1960年代初에 태어난 世代가 靑壯年層으로 轉移된 것이 둘째 要因이다. 앞으로 出生率이 특별히 上昇되지 않는 한 濟州島의 少年人口構成比도 상당히 더 낮아지게 될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게 본다면 少年人口의 構成比率은 대체로 7~8年前의 出生率 變動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겠다.

靑壯年層(15~59歲) 人口의 構成比率을 靜態的으로 觀察하게 되면 一次的으로는 少年人口의 構成比率에 의해서 相對的으로 決定된다. 그래서 대체로 少年人口의 構成比率이 增大되면 靑壯年人口의 構成比率은 減少되고, 少年人口의 構成比率이 減少되면 반대로 靑壯年層의 比率은 增大된다. 이런 傾向性은 全國에서나 濟州에서나 똑같이 발견이 된다. 全國의 靑壯年層 構成比率이 1966년까지 낮아지다가 1970년부터 높아지는 현상이나, 濟州島의 靑壯年層 構成比率이 1970년까지 낮아지다가 1975년부터 높아지는 현상은 바로 少年人口와 靑壯年人口의 逆比的 相關傾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少年人口의 構成比率이 出生率의 變動과 靑壯年層으로의 人口轉移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動態的으로 보면 靑壯年層의 構成比率은 少年人口層으

로부터 轉移되는 人口集團에 의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1975년부터 全國의 靑壯年 人口比率이 갑자기 높아지는 현상이나 1980년에 濟州島의 靑壯年層 構成比率이 갑자기 높아지는 현상은 出生率의 低下로 인한 少年人口의 상대적 감소와 出生率이 높았던 시기에 태어난 세대가 대량으로 靑壯年層으로 編入되는데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濟州島의 靑壯年層 構成比率이 상당히 낮다는 점이다. 少年人口의 比率이 全國보다 높은 年度이거나 낮은 年度이거나 간에 濟州島의 靑壯年層 構成比率은 항상 全國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少年人口의 相對的影響을 統制하기 위해서 少年人口의 比率이 같은 경우끼리 - 예를 들면 1966년의 全國과 1970년의 濟州, 1970년의 全國과 1975년의 濟州 등 - 비교하더라도 여전히 靑壯年層의 構成比率은 全國보다 濟州島가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앞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濟州島의 靑壯年層 人口缺損이 매우 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1975년의 全國 人口構成과 1980년의 濟州島 人口構成을 비교했을 때 靑壯年 構成比率의 差異가 1퍼센트 정도로 축소되고 있는 것을 보면 濟州島의 靑壯年層 人口 중에서 缺損이 심했던 年齡層이 점차 老年人口로 轉移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濟州島의 年齡別 人口構成에서 缺損이 매우 심했던 것으로 推定되었던 1910~1930년생이 1980년에는 50~70歲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1960년 이후 出生률이 높았던 시기에 태어났던 年齡層이 계속 靑壯年層으로 編入되고 缺損이 심했던 年齡層이 서서히 老年層으로 물러나기 때문에 靑壯年層의 構成比率이 비교적 낮다고 하는 濟州島 人口構成의 特徵은 앞으로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年齡三區分에 의해서 濟州島의 人口構成을 살펴볼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特徵은 老年人口의 構成比率이 현저하게 높다는 점이다.

總人口 중에서 60歲 이상의 老人이 차지하는 比率을 보면 全國의 경우는 5.5~6 퍼센트 水準인데 비해 濟州島는 年度別로 상당한 差異가 있기는 하지만, 7~9.5퍼센트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60년에는 全國의 5.5퍼센트에 비해 濟州島는 9.5퍼센트로서 4퍼센트 포인트나 差異가 나고 있다. 60歲以上の 老人이 전체 人口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10퍼센트 미만으로 비교적 낮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4퍼센트 포인트는 매우 큰 차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차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濟州島 老人의 長壽說을 뒷받침하는 論據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66년 이후 全國의 老人人口 構成比率은 少年人口의 減少에 따라 점차 增加하고 있는데 비해 濟州島의 老人人口는 少年人口의 增減에 관계없이 계속 減少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傾向은 1960년 이전의 낮은 出生率과 靑壯年層 人口의 심한 缺損으로 濟州島의 老人人口가 非正常的으로 肥大해져 있었던데서 비롯된다. 이 때문에 1970년 이후 많은 老人이 死亡에 의해 退潮하고 缺損이 심했던 靑壯年層이 老年層으로 編入됨에 따라 少年人口가 減少함에도 불구하고 老年人口의 構成比率은 현저하게 減少하는 趨勢를

보이게 된 것이다.

이와같이 非正常的으로 肥大해져 있던 濟州島의 老人人口의 構成比率이 減少하면서 1960年 이후 全國値와의 差異는 점차 축소되어 1980年에는 불과 0.7 퍼센트 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만을 보이고 있다. 全國의 老人人口 構成比率에 대한 濟州島 老人人口의 相對的 減少趨勢는 1930年生이 老年層으로 編入되는 199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985年 人口센서스부터는 濟州島의 老人人口 構成比率이 오히려 全國値보다 낮은 逆現象을 보이게 될 것으로 展望된다.

지금까지 筆者는 年齡을 三區分하여 濟州島와 韓國 全體의 人口構成을 比較 檢討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年齡三區分에 의한 人口構成을 이용하여 몇가지 人口學的 指數를 算出함으로써 앞에서 論議된 內容들을 再整理하고자 한다. 이미 濟州島의 年齡別 人口構成에서 나타나는 몇가지 特徵들을 지적하고 그 原因과 앞으로의 展望에 대해서 상세하게 言及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겠다.

少年人口指數는 靑壯年人口(15~59歲)에 대한 0~14歲人口의 相對的 比率이다. 少年人口指數는 靑壯年人口의 크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出生率의 變動이 심한 경우에는 一

Table 3. Dependency Ratios and Aging Index

人口學的 諸指數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Whole Country	Youth Dependency Ratio	77.5	82.8	84.8	80.3	67.7	56.8
	Aged Dependency Ratio	10.4	10.6	10.1	10.3	9.9	10.2
	Dependency Ratio	87.9	93.4	94.9	90.6	77.6	67.0
	Aging Index	13.5	12.9	11.9	12.9	14.7	17.9
Jeju	Youth Dependency Ratio	65.2 (78.2)	77.5	86.0	89.9	84.3	68.8
	Aged Dependency Ratio	14.8 (17.8)	18.6	16.8	16.7	14.9	12.3
	Dependency Ratio	80.0 (96.1)	96.1	102.8	106.6	99.2	81.1
	Aging Index	22.7 (22.8)	24.1	19.6	18.6	17.7	17.9

Source: Same as the source in Table 1.

$$\text{Youth Dependency Ratio} = \frac{P_{0-14}}{P_{15-59}} \times 100$$

$$\text{Dependency Ratio} = \frac{P_{0-14} + P_{60+}}{P_{15-59}} \times 100$$

$$\text{Aged Dependency Ratio} = \frac{P_{60+}}{P_{15-59}} \times 100$$

$$\text{Aging Index} = \frac{P_{60+}}{P_{0-14}} \times 100$$

次的으로 出生率의 變化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全國과 濟州島의 出生力 趨勢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老年人口指數는 靑壯年人口에 대한 老年人口(60歲以上)의 相對的 比率이다. 年齡別 人口構成에 심한 起伏이 없는 比較的 安定된 人口構造에서는 靑壯年人口과 老人人口 사이의 相對的 比率도 크게 動搖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老年人口指數는 一定 水準을 유지하게 되며 變化가 있더라도 매우 점진적으로 變化하게 된다. 全國의 老年人口指數가 전반적으로 10을 전후해서 별 變動이 없는 것은 全國의 人口構造가 특히 靑壯年層 이후에서 비교적 安定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濟州島의 老年人口指數는 1960年 이후 계속 減少趨勢를 보이고 있고 그 變化의 폭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濟州島의 靑壯年人口과 老人人口가 매우 不安定한 構造를 이루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며 少年人口指數와 老年人口指數가 모두 높다는 것은 靑壯年層人口가 상대적으로 매우 貧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少年人口指數와 老年人口指數의 합으로 算出되는 扶養人口指數도 濟州島가 훨씬 높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15~59歲 人口層을 生産年齡人口로 간주한다면 濟州島의 生産年齡人口가 담당해야 할 負擔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1970年 이후 少年人口指數와 老年人口指數가 모두 낮아지고 동시에 扶養人口指數도 낮아지고 있다. 이것은 靑壯年層人口(生産年齡人口)가 相對的으로 增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生産年齡人口가 담당해야 할 負擔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뜻한다. 日帝下의 海外移出과 4·3事件에 의해 심하게 缺損된 靑壯年層이 점차 老年層으로 轉移되고 또 出生力 減少趨勢와 함께 高出生力 世代가 大量으로 靑壯年層에 編入되어짐에 따라 扶養人口指數는 좀 더 低下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특별한 異變-갑작스런 出生率의 上昇, 少年人口와 老年人口의 轉入輻輳, 靑壯年人口의 轉出輻輳 등 -이 없는 한 1985年 센서스에서는 少年人口指數가 60以下, 老年人口指數가 10 정도로 낮아져서 扶養人口指數도 70以下の 水準으로 떨어질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生産年齡人口의 比率이 相對的으로 增大된다는 것은 扶養人口比의 減少를 가져오고 이들이 扶養해야 할 負擔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生産年齡人口의 絶對數 增加는 현실적으로 就業難을 加重시키는 심각한 經濟的, 社會的 問題를 야기시키게 된다.

表 4에 의하면 1970년까지 濟州島의 生産年齡人口 增加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다. 1960~66年 사이에 23,000명 정도가 증가하였으나 이때는 조사간격이 6년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濟州島 開發社業의 展開에 따라 移入人口가 매우 많았던 사정을 감안한다면¹⁷⁾ 經濟的으로 그렇게 큰 負擔은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1970年 이후에 生産年齡人口의 實數 增加는 매우 급격하게 일어나서 1970~75년에 약 30,000餘名, 1975~80년에는

17) 李昌基, “濟州島의 人口成長,” 耽羅文化, 創刊號, 1982.

Table 4. Growth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ge 15—59) in Jeju

濟州島의 生産年齡人口 增加趨勢

Year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Number of Econo. Active Pop.	133,524	143,592	166,331	176,746	206,757	255,146	(299,000 —306,600)
Increase Number of Econo. Active Pop.	10,068	22,739	10,415	30,011	48,389	(44,000 —51,600)	

Source: Same as the source in Table 1.

* Author's estimates

약 48,000餘名을 넘고 있다.

1980~85年 사이의 生産年齡人口 實數增加는 현재로서 正確하게 豫測할 수가 없다. 그러나 몇가지 가능한 假定을 세우고 推定한다면 대체적인 윤곽은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래서 筆者는 다음과 같은 假定 위에 1985年の 濟州島 生産年齡人口를 推定해 보았다.

- ① 1980年 濟州島 總人口는 1980年 人口센서스 잠정보고서(전수집계결과)에 의거해서 462,500名으로 간주한다.
- ② 1980年の 生産年齡人口는 1980年 人口센서스 속보(2% 표본추출 집계결과)에 의거해서 255,000名으로 간주한다.
- ③ 1980~85年の 年平均人口增加率은 出生率 趨勢와 人口移動 등의 不確實性을 감안하여 1.5퍼센트, 1.8퍼센트, 2.0퍼센트의 3가지로 假定한다.
- ④ 1985年の 生産年齡人口(15~59歲) 構成比率은 年齡三區分에 의한 人口構成의 變化趨勢를 감안하여 60퍼센트로 假定한다.

이상과 같은 假定 위에서 算出한 1985年の 濟州島 生産年齡人口數와 1980~85年 사이의 增加數는 아래 表 5 와 같다.

表 5 에 의하면 1980~85年の 濟州島 年平均人口增加率을 2퍼센트로 가정할 때 生産年齡人口의 絶對數 增加는 무려 51,600名으로 推算되고 최소 1.5퍼센트 水準으로 가정하더

Table 5. Estimated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ge 15—59) in Jeju, 1985

1985年の 濟州島 生産年齡人口推定

Annual Increase Mean Rate (Assumption)	Pop. in Jeju, 1985	E.A.P. 1985	Increase Number of E.A.P. 1980—85
1.5%	498,500	299,000	44,000
1.8%	506,000	303,600	48,600
2.0%	511,000	306,600	51,600

라도 44,000名은 増加할 것으로 推定된다.

生産年齡人口의 絶對數 増加가 이처럼 급격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濟州島의 社會 與件으로 볼 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濟州島의 職業 및 産業構造가 農水産業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또 이 推定値에는 이미 陸地로의 人口移動까지 감안된 것임을 고려한다면 이들에 대한 就業問題는 시급한 對策이 요청되는 것이다.

IV. 可妊年齡層의 女性人口

出生과 死亡 등 人口動態率이 年齡別人口構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이지만 年齡別人口構造도 또한 動態率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出産이 可妊期 有配偶女性에 의해서 遂行되어지기 때문에 可妊年齡層의 女性人口는 出生率의 變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자리에서는 可妊期 女性人口의 變化를 概觀해 보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 濟州島의 人口動態를 展望해 보고자 한다.

表 6 과 表 7 은 濟州島의 可妊年齡層(15~44 歲) 女性人口와 이들 중 특히 出生力이 왕성한 20~34 歲의 女性人口를 全國과 비교한 것이다.

表 6 과 表 7 을 보면 濟州島의 可妊女性人口 比率이 全國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水準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점은 年齡 3 區分에 의한 人口構成에서 濟州島의 靑壯年層人口가 비교적 낮은 비율을 점하고 있었던 바와 일치한다. 男子뿐만 아니라 女子의 경우에 있어서도 濟州島의 生産年齡人口가 빈약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全體女子人口數에 대한 可妊年齡層女性의 比率을 年度別로 살펴보면 人口政策的인 面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全國의 15~44 歲 女性人口의 比率은 1970~75 年 사이에 3.6 퍼센트 포인트의 급속한 増加를 보이고 있고 1975~80 年 사이에도 2.1 퍼센트 포인트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出生率 低下에 따른 相對的 減少의 영향도 있기는 하지만 1960 年代初 이전의 「베이비 붐」

Table 6. Female Population Aged 15—44

15—44歲 女性人口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Whole	Number	4,705,520	5,251,176	6,022,201	6,640,950	7,855,172	8,904,888
Country	Percentage	43.8	42.2	41.6	42.4	45.6	47.7
Jeju	Number	54,968	59,655	68,544	71,891	83,830	100,638
	Percentage	39.6	39.7	38.8	37.8	39.3	42.6

Source: Same as the source in Table 1.

Table 7. Female Population Aged 20—34

20—34歲 女性人口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Whole	Number	2,460,572	2,828,952	3,207,356	3,416,383	3,839,818	4,717,342
Country	Percentage	22.9	22.7	22.2	21.8	22.3	25.3
	Number	27,707	31,848	36,336	37,002	39,706	49,218
Jeju	Percentage	20.0	21.2	20.6	19.5	18.7	20.8

Source: Same as the source in Table 1.

을 타고 태어난 세대가 이 시기에 可妊年齡層으로 編入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出生力이 왕성한 20~34歲 年齡層은 1975~80年 사이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1970~75年の 0.5퍼센트 포인트 증가에 비하면 이 기간의 3퍼센트 포인트 증가는 매우 높은 수준인 것이다. 絶對數 増加를 보더라도 全體可妊女性人口(15~44歲)가 약 105萬名 増加하였는데 이 중에서 약 88萬 정도가 20~34歲層에서 증가하였던 것이다. 이 年齡層女性의 급격한 증가가 1970年代 후반 우리나라의 人口成長率 低下에 큰 負擔要素가 되었던 것이다.

濟州島의 경우에 있어서는 全體可妊女性과 20~34歲層女性이 동시적으로 1970年代 후반에 増加傾向을 보이고 있다.¹⁸⁾ 우선 比率面서 1975~80年 사이에 15~44歲女性이 3.3퍼센트 포인트 증가하였는데 20~34歲女性도 2.1퍼센트 포인트가 증가하고 있다. 또 絶對數에 있어서는 15~44歲가 16,800餘名이 증가하였는데 20~34歲도 9,500餘名이 증가하고 있다.

1980年 인구 센서스 속보(2% 표본추출집계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可妊年齡層으로 編入될 少年層의 女子人口가 매우 두텁게 자리잡고 있다. 이 때문에 人口移動의 影響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상당 기간동안 出生力이 왕성한 20~34歲 女性의 絶對數는 급속하게 증가될 것으로 展望된다.

이 점이 1980年代 濟州島人口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問題點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 같다. 1970年代 후반에 들어와서 家族計劃의 受容率이 괄목할 만하게 上昇하고 있기는 하지만¹⁹⁾ 家族計劃은 希望子女數를 出産한 후에야 實踐하는 것이기 때문에 可妊女性의 絶對數 増加를 家族計劃이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家族計劃의 보급이 계속 확대된다 하더라도 可妊女性人口의 増加率을 알지르지 못하면 出生率은 低下되

18) 1975年和 1980年の 年齡階級別人口를 보면 人口移動의 影響도 상당했으리라 짐작되지만 이 점은 별도의 분석을 필요로 한다.

19) 洪文植·朴在彬·洪性烈·朴善圭, 『家族計劃普及極大化示範研究事業 中間評價報告』, 家族計劃研究院, 1979. p. 60

李昌基, “濟州島의 人口成長,” 『耽羅文化』, 創刊號, 1982.

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出生力이 왕성한 20~40歲 女性人口의 급격한 증가는 出生率의上昇에 중요한 變數로 作用할 可能性이 매우 크고 濟州島의 人口政策에 큰 負擔要素가 아닐 수 없다.

V. 性 比

性比(Sex ratio)는 일반적으로 女子人口 100에 대한 男子人口의 比率로서 算出된다. 한 社會의 人口가 封鎖人口의 狀態에 있을 때는 性比는 出生性比와 死亡性比에 의해서 決定된다. 그러나 人口移動이 심한 경우에는 移動人口의 性比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性比는 그 社會의 傳統的 慣習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女兒殺害風習이 있는 경우는 극단적인 例라 하더라도 男尊女卑意識이 강한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女兒의 養育에 소홀해지기 때문에 女兒의 死亡率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濟州島는 옛부터 女子가 많은 고장으로 알려져 왔다.

金尚憲은 그의 南槎錄(1628年刊)에서 地誌, 南溟小乘, 漂海錄 등을 引用하여 濟州島에 女子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당시 주요지역의 男女別人口를 소개하고 있다.²⁰⁾ 또한 李元鎭도 역시 耽羅誌(1653年刊)에서 濟州島의 女多現象을 記述하고 있다.²¹⁾

石宙明은 「濟州島隨筆」에서 各種 資料로부터 발췌한 朝鮮時代의 濟州島人口에 관한 記錄들을 整理하고 있다. 이 記錄들에서도, 偏差가 심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性比가 75~98 정도의 女多現象을 보이고 있다.²²⁾

그러나 朝鮮時代 특히 1700年代 이후의 戶口調査는 調査漏落, 虛爲申告 등이 매우 심하여 人口學의으로 信賴할 만한 統計가 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濟州島에는 과도한 勞役을 피하기 위하여 男子에 漏籍者가 많았다고²³⁾ 하니 어느 정도 實際에 가까운 것인지 짐작하기가 어렵다.²⁴⁾

우리나라에서 近代의인 人口統計가 作成되기 시작한 것은 1910년 이후 年末常住 人口調

20) 金尚憲 編著, 朴用厚 譯, “南槎錄,”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pp. 53~54, 123, 130, 145, 181

21) 李元鎭 編, 金行玉 譯, “耽羅志,”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p. 214

22) 石宙明, 濟州島 隨筆, 寶晉齋, 1968, pp. 199~201

23) 石宙明, 濟州島 隨筆, p. 187

24) 朝鮮時代 後期の 人口統計들 가운데 비교적 調査漏落이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年度の 濟州島 性比가 대체로 90 전후를 넘고 있다. 이 점으로 본다면 朝鮮後期の 濟州島 性比는 적어도 90은 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査가 실시되면서부터이고 보다 본격적인 것은 1925年 國勢調査가 처음이다. 따라서 濟州島人口에 대한 보다 正確한 把握도 이때부터 가능하다고 하겠다.

1925年 이후 國勢調査에 나타난 濟州島의 男女別人口數와 性比를 정리해 보면 다음 表 8 과 같다.

表 8 에 의하면 1925년부터 1944년까지 日帝下에서 실시된 國勢調査에 나타난 濟州島의 性比는 85.4~87.5 정도의 女多現象을 보여주고 있다.

日帝時에 濟州島의 性比가 이렇게 낮은 것은 濟州島民의 島外移出이 매우 많았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실시된 土地調査事業에 의해 韓國農民은 生活의 터전을 잃고 没落, 流浪하게 되었고²⁵⁾ 특히 濟州島는 어려운 營農條件과 地理的인 利點으로 인하여 1920年頃부터 日本으로 건너가는 者가 격증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1918년에 500톤급 선박이 濟州-下關-大阪을 잇는 航路에 運航이 시작되었고 1924년부터는 1,000톤급 汽船 3척이 경쟁취항하였던 것으로 보아 짐작이 간다.²⁶⁾

Table 8. Sex Ratio for Jeju Island 1925—1980
濟州島의 年度別 男女人口와 性比

Year	Male	Female	Sex Ratio
1925	94,611	109,257	86.6
1930	95,125	111,449	85.4
1935	95,035	110,167	86.3
1940	99,041	113,229	87.5
1944	101,341	118,547	85.5
1949	114,736	139,791	82.1
1955	123,141	138,808	88.7
1960	131,371	150,291	87.4
1966	160,507	176,545	90.9
1970	175,093	190,044	92.1
1975	199,311	212,175	93.9
1980	226,153	236,089	95.8

Source: Same as the source in Table 1.

25) 慎鍾廈, 朝鮮土地調査事業研究, 韓國研究院, 1979

26) 夫萬根, 光復濟州30年, 1975, p. 425

朴用厚, 濟州島誌, 白映社, 1976, p. 176

濟州道, 濟州道誌(下), 1982, p. 306

申幸澈, “在日濟州僑胞,” 耽羅文化, 創刊號, 1982.

이리하여 1910年 韓日合邦 당시 15~20名에 지나지 않던 在日 濟州島民이 1930年에는 31,586名, 1938年에는 45,950名으로 集計되고 있다.²⁷⁾

1938年末 日本居住者 45,950名の 性別構成을 보면 男子 25,839名, 女子 20,111 名으로 男子가 5,700餘名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⁸⁾ 당시 濟州島의 人口가 1,410名の 外國人을 포함해서 男子 95,542名, 女子 108,109名으로 性比 88.4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日本居住者를 合算하면 性比는 94.7로 높아지게 된다. 國內 陸地部와 기타 海外地域에도 상당수의 濟州島民이 移出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이들 중에도 男子가 많은 것을 고려한다면 日帝下의 島外移出이 濟州島의 性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짐작이 간다.

1940年 이후에는 太平洋戰爭 勃發에 따른 徵兵과 徵用으로 濟州島民의 島外移出이 한층 더 격화되었다. 2次大戰中에 日本으로 강제연행된 濟州島民이 약 5萬名에 달하였다는 기록도 있다.²⁹⁾ 이리하여 解放 당시 在日濟州島民은 약 10萬名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³⁰⁾ 1944年 國勢調査의 性比가 85.5의 낮은 수준을 보이게 되었다.

1925年 이전의 濟州島人口에 관한 믿을 만한 資料는 거의 없다. 筆者의 管見에 들어온 것으로는 泉靖一이 「濟州島勢要覽」에서 인용한 1916年の 統計와 「濟州道誌」가 인용한 1923年の 統計가 있다.³¹⁾ 이들에 의하면 1916年の 濟州島人口는 男子 99,457名, 女子 102,615名으로 性比 96.9를 보이고 있고, 1923年에는 男子 104,044名, 女子 104,974名으로 性比 99.1을 기록하고 있다. 이 資料들은 警察의 戶口調査를 基礎로 한 年末常住人口調査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수의 出他者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러나 濟州島民의 島外移出이 1920年 이후에 격화되었다고 한다면 1916年の 島勢要覽 統計는 實際에 매우 가까운 것으로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면 1920年 이전의 濟州島 性比는 95 이상을 유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日帝下에서 濟州島의 性比가 극심한 不均衡을 이룬 것은 1920年 이후의 島外移出에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解放과 더불어 많은 濟州島民이 귀환함으로써 日帝下의 극심한 性比 不均衡은 많이 호전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解放 당시 在日濟州島民 10萬여명중 실제로 귀환한 者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6萬餘名이 그대로 日本에 殘留한 것으로 보이고³²⁾ 또 1948년부터 수년간 진행된 4·3事件으로 濟州島의 性比는 다시 엄청나게 低下하였던 것이다. 公式發表에

27) 濟州島廳, 濟州島勢要覽, 1939, p. 12

28) 濟州島廳, 濟州島勢要覽, 1939, p. 14

29) 濟州道, 濟州道誌(上), 1982, p. 871

30) 朴用厚, 濟州島誌, 白映社, 1976, p. 176

31) 泉靖一, 濟州島, 東京大學出版會, 1966, p. 283

濟州道, 濟州道誌(上), p. 601〈表 13〉

32) 申幸澈, “在日濟州僑胞: 그 少数集團으로서의 性格과 階層構造,” 耽羅文化, 創刊號, 1982

의하면 4·3事件의 희생자수는 死亡 27,719名, 行方不明 38名으로 밝혀지고 있는데³³⁾ 이 숫자는 당시 濟州島民의 1割을 넘는 엄청난 희생이었던 것이다. 이들 중에 남자가 많은 비율을 점하였을 것은 쉽게 짐작이 간다. 이리하여 1949年 人口센서스에 濟州島의 性比는 82.1로 史上 最低를 기록하였던 것이다.

6·25動亂은 濟州島의 性比를 크게 上昇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現在人口原則(de facto principle)에 입각해서 당시 濟州島에 주둔하고 있던 軍人까지 포함시킨 1955年の 國勢調査에 의하면 濟州島의 性比가 108.1로 나타나고 있다. 軍人들을 常住地로 還元시켜서 再集計한 權泰煥의 推定値에 의하더라도 88.7로서 1949年の 82.1에 비하면 현저하게 上昇된 것이다. 이처럼 性比가 上昇된 것은 軍人家族과 避亂民의 流入에 힘입은 것이다.

1960年 이후에는 出生率이 높아지고 性比가 심하게 不均衡을 이루었던 年齡層이 점차 퇴조함에 따라 濟州島의 性比는 점차 높아져서 1980年 人口센서스 조사속보(2% 표본추출집계)에 의하면 95.8을 기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濟州島의 性比變化趨勢는 各 센서스 年度의 年齡別性比를 검토해보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1925년부터 1944年까지 日帝下의 全期間을 통해서 15~49歲層의 性比가 현저하게 낮은 것은 이 年齡層의 島外移出이 매우 심했다는 증거이며 日帝末에 이를 수록 青年層의 性比 不均衡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解放後에 많은 僑胞가 歸還했음에도 불구하고 1949年 青年層 이상의 性比가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不均衡을 노출하게 된 것은 4·3事件에 의한 많은 男性의 희생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1960年 이후 性比 不均衡이 심한 年齡層이 점차 高齡化함에 따라 老年層의 性比는 더욱 낮아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性比 不均衡이 많이 개선되어서 1980년에는 40代末까지 正常的인 性比를 회복하게 되었다. 1980年 현재의 50代가 年齡構造上에서 退潮하게 되면 濟州島의 性比는 正常을 되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20年 이내에 「女多

1960年 이후 濟州島의 年齡別 性比에서 한가지 특징적인 모습은 15~24歲層-특히 20~24歲層-의 性比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 年齡層의 女子人口移動率이 男子보다 다소 높아서 女子가 더 많이 島外(대개 陸地의 都市地域)로 移出한데도 原因이 있겠지만 보다 根本的인 原因은 이 年齡層의 男子人口中 多數를 점하고 있는 軍服務中인 士兵들을 入隊前의 本家로 還元하여 集計하였기 때문이다.³⁴⁾

의 섬」이라는 濟州島의 神話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33) 註 10) 參照

34) 1955年の 15~19歲層의 性比가 124.9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軍人들을 還元시켜 再集計할 때 이 年齡層을 제외시켰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당시 軍人들 중에는 20歲 미만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註 5) 參照.

Table 9. Sex Ratio by Age for Jeju Island 1925—1980

濟州島의 年齡別 性比趨勢

Age	1925	1930	1935	1940	1944	1949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0— 4	104.6	102.5	102.9	106.8	104.3	99.1	112.6	104.4	103.0	105.2	105.0	113.4
5— 9	109.1	105.2	104.4	107.8	106.6	99.1	103.9	103.5	105.3	103.3	105.5	107.6
10—14	100.6	101.8	105.6	108.6	108.6	103.5	107.7	106.1	104.2	106.5	104.2	107.3
15—19	78.5	82.6	90.5	86.5	84.0	84.0	124.9	114.9	110.7	108.4	111.0	104.0
20—24	70.3	69.4	70.3	68.0	60.4	67.1	78.2	111.4	119.5	115.3	110.5	112.9
25—29	70.0	66.6	64.2	62.4	57.1	68.3	79.2	89.9	103.4	103.6	104.3	105.8
30—34	75.2	69.9	66.2	64.6	57.8	66.8	74.3	69.3	97.5	102.0	105.4	94.9
35—39	80.2	74.9	71.9	72.0	67.3	63.2	71.2	61.2	70.8	88.8	100.6	103.5
40—44	84.5	80.6	78.6	77.6	75.2	65.6	61.4	65.3	61.8	68.3	86.6	102.2
45—49	80.3	80.1	82.0	82.5	84.5	70.0	64.8	59.8	64.6	61.9	67.2	93.0
50—54	85.2	84.5	86.0	83.5	83.4	74.8	65.0	60.2	57.9	64.4	58.6	64.2
55—59	79.2	78.7	80.1	83.7	80.0	72.2	66.9	60.0	57.3	56.2	59.9	48.6
60—64	77.3	78.5	81.3	77.5	76.3	72.8	65.9	60.5	56.0	54.2	50.4	50.7
65—69	76.0	75.4	76.9	75.5	76.3	68.6	63.6	56.5	53.1	49.9	48.1	
70—74	66.0	66.2	67.8	71.4	74.0	64.0	62.1	58.1	51.0	47.6	42.9	34.4
75+	57.8	57.6	58.7	63.6	63.7	55.5	53.5	50.1	44.2	38.6	35.9	
Total	86.6	85.4	86.3	87.5	85.5	82.1	88.7	87.4	90.9	92.1	93.9	95.8
Whole Country	104.7	103.6	103.1	101.1	99.4	102.1	100.0	100.8	101.4	100.8	101.2	100.4

Source : 1) The sex ratios by age for Jeju Island 1925—44 are calculated from Tai Hwan Kwon's estimates. (Tai Hwan Kwon, *Demography of Korea*, 1977, pp. 279—285)

2) For the years 1949—80 ; Same as the source in Table 1.

3) The sex ratios of whole country 1925—44 are for all Korea, and those 1949—80 are for South Korea.

VI. 結 論

人口現象은 한 社會의 歷史的 經驗을 反映한다. 濟州島의 人口構成이 보여주는 여러가지 특징적인 모습들은 바로 濟州島民의 恨이 서린 過去의 歷史的 記錄이며 그것의 現在的 表現이다. 이 아픔과 고통의 흔적은 濟州島의 人口構成 속에 構造的 不均衡으로 남아 있다.

오늘날 濟州島의 人口構成은 빠르게 變貌해가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變貌해 가고 있는 濟州島의 人口構成에 대한 몇 가지 展望과 아울러 지금까지 검토해온 바를 要約함으로써

結論으로 삼을까 한다.

1. 1960年代末까지는 全國에 비해 약간 낮은 比率을 보여 주던 濟州島의 少年人口는 1970年 이후에는 全國에 비해 상당히 높은 比率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1960年代 이후 높은 出生率을 지속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1975~80年 사이에 出生率 低下와 多數의 少年人口가 靑壯年層으로 編入됨에 따라 少年人口의 構成比率이 현저히 減少하고 있다. 앞으로 少年人口의 構成比率은 계속 減少할 것으로 보인다.

2. 濟州島의 靑壯年層人口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比率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日帝下의 島外移出과 4·3事件의 영향이 매우 큰 때문이다. 그러나 少年人口의 比率減少와 缺損이 심했던 年齡層이 老年化됨에 따라 1975年 이후 靑壯年層人口의 構成比率은 급속하게 增加되고 있다. 1985년에는 60퍼센트를 넘어설 것으로 展望된다.

3. 그러나 生産年齡層人口의 絶對數가 급격하게 增加함으로써 就業難을 加重시키는 심각한 社會·經濟的 問題를 야기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雇傭對策이 시급히 要請된다.

4. 靑壯年層人口의 增大는 필연적으로 可妊女性人口의 增大를 수반한다. 특히 出生力이 왕성한 20~34歲 女性人口의 급격한 增加는 出生率 上昇의 要因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濟州島의 人口政策에 큰 負擔이 될 것으로 보인다.

5. 濟州島는 長壽의 고장으로 알려져 왔고 실제 資料에서도 老人人口의 比率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靑壯年層人口의 缺損으로 인한 相對的 比率增大 때문이었다. 靑壯年層人口의 比率이 增大되고 缺損이 심한 年齡層이 老年化함에 따라 老人人口의 比率은 계속 減少하는 趨勢를 보이고 있다. 1985年 이후에는 濟州島의 老人人口의 比率이 오히려 全國值 보다 낮아질 것으로 展望된다.

6. 濟州島에 女子가 많은 것은 日帝時 男子의 많은 島外移出과 4·3事件으로 인한 많은 男性의 희생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50年代 후반부터 性比 不均衡이 심한 年齡層이 高齡化함에 따라 濟州島의 性比는 꾸준히 上昇되어 1980년에는 95.8을 기록하였다. 머지않아 人口構造上에서 「女多의 섬」이라는 濟州島의 特性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 高甲錫・崔英姬, “濟州島人口의 特質”, 人口問題論集, 第 2 號, 1966.
- 朴用厚, 濟州島誌, 白映社, 1976.
- 夫萬根, 光復濟州30年, 文潮社, 1975.
- 石宙明, 濟州島의 生命調查書－濟州島人口論－, 서울신문사출판부, 1949.
- 石宙明, 濟州島 隨筆, 寶晉齋, 1968.
- 愼鏞廈, 朝鮮土地調查事業研究, 韓國研究院, 1979.
- 申幸澈, “在日濟州僑胞 : 그 少數集團으로서의 性格과 階層構造”, 耽羅文化, 創刊號, 1982.
- 李昌基, “濟州島의 人口成長”, 耽羅文化, 創刊號, 1982.
- 濟州道, 濟州道誌 (上・下), 1982.
- 제주도교육위원회, 耽羅文獻集, 1976.
- 濟州島廳, 濟州島勢要覽, 1939.
- 洪文植・朴在彬・洪性烈・朴善圭, 家族計劃普及極大化示範研究事業中間評價報告, 家族計劃研究院, 1979.
- 泉靖一, 濟州島, 東京大學出版會, 1966.
- Tai Hwan Kwon, *Demography of Korea*, S.N.U. Press, 1977.

(Abstract)

A Population Composition by Age and Sex in Jeju Island

Chang-gi Le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the population composition by age and sex in Jeju Island on the basis of census.

The past population of Jeju Island had shown the following features, compared with that of the whole country.

- 1) Lower proportion of the group aged 0-14 and 15-59.
- 2) Higher proportion of the group aged 60 and over.
- 3) Lower sex ratio.
- 4) Lower crude birthrate.

It is assumed that the said features were mostly caused by the factors such as the outward-migration of many young me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victims of 4.3 incident in 1948.

The population composition of Jeju Island has been changed recently. The following are the major findings drawn from this study.

- 1) The crude birthrate continued to keep a high level during 1960-70, but has been rapidly decreased from 1970.
- 2) The proportion of the aged 0-14 has been decreased from 1975. It appears that such a trend would be kept for some times.
- 3) The proportion of the aged 15-59 has been rapidly increased from 1975. This result suggests that an effective plan for both unemployment and the fertility control be considered.
- 4) It is another important fact to be mentioned that the proportion of the group aged

* Department of Sociology, Jeju University.

60 and over has been decreased continuously. This might mean that the proportion of the old age in Jeju Island would be lower in 1985, compared with that of the whole country.

5) The sex ratio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ed. This fact might draw that, in the near future, the predominance of females in terms of sex ratio would be disappeared.